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29일)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20돌 템플스테이와 20살 청춘 만남 스무살 청춘들이 20돌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이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연등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108배, 명상 등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9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선관위, 7월 20일 일정 등 확정
8월8일 공명선거위원단 출범식
후보등록 8월 9일~11일 3일간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이 새로운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7월 20일 제384차 회의를 열고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시행일정을 비롯해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지침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는 9월 1일 시행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직접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한 중앙선관위 회의는 8월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다만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단독후보시 선거 없이 당선토록 규정돼 있어, 후보등록 기간 중 1인 등록시에는 선거인단 구성 없이 무투표 당선 확정된다.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다.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본사 주지 포함)이며, 선거인단 자격심사는 8월 26일 오후 2시 열린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선거 진행을 위해 공명선거위원단도 구성, 운영된다. 중앙선관위는 8월 8일 오후 2시 공명선거위원단 출범식을 열고 위원 위촉 및 공명선거 활동서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법 제8조에 따르면 공명선거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후보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 총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선거운동은 선거법 제39조와 40조, 제47조에 근거해 종책자료집과 신문광고, 종책토론회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법상 규정이 없는 SNS는 선거운동 방식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장 세영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중차대한 일인 만큼, 선거일정과 제반사항, 추진과정 등에서 일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군승' 의무화 첫 발, 수급 숨통 틔워

조계종 중앙종회, 7월 19일 '청소년 출가 특별법' 개정안 가결

노덕현 · 송지희 기자

本紙 기획연재 '군승파송 절벽 다가온다' 보도 후 군승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립대학 청소년출가자들의 군승 의무복무' 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종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한 호평과 함께 이들이 군승으로 복무할 시기까지의 단기수급책과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장기적인 군포교 진흥책을 마련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립대 군미필스님, 군승 의무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7월 19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출가장려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출가특위)' 가 입법발의한 '청소년 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10조 '군법사 지원특례' 조항을 '군승 복무 및 지원특례' 로 변경하고, '소년출가자 중 현역의무복무 대상자인 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한 때에는 반드시 군승으로 의무복역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기존 '소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우선선발해야 한다' 는 조항에서 의무를 대폭 강화해 강제성을 부여한 셈이다.

그에 따른 혜택도 명시됐다. 개정안은 같은 조 3항에 '소년출가자(사미, 사미니, 비구, 비구니)가 종립대학에 재학중이고 군승복무를 약정한 경우 종단은 제9조 3항 이외에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年2~10명 수급 기대, 최소 충족

이번 종립대학 청소년출가자의 군승 의무복무로 인하여 수급에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주요 대상자인 소년출가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연간 10여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군승으로 임관하기까지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

국방부는 3월 조계종 총무원장 및 군종교구장 앞으로 '군종장교 충원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군종장교 파송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경우 부득이 군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진입한 종교나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종교 및 종단으로부터 군종장교를 충원 받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년출가자' 의무복무제 종회서 만장일치로 가결
本紙보도 영향 한목소리

4년간 수급책 추가 과제
군인연금 · 석사 연동 등
현장 맞는 진흥책도 필요

국방부에서 내년 4월까지 요구하는 파송인원은 올해 파송 미달 영향으로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종특별교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모집한 군승 자원은 14명으로, 선발과정에서의 탈락 등을 감안하면 10여명이 더 필요한 상황,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등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중앙종회 출가특위 위원장 정범 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이 군포교의 중요성과 군승 파송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뜻을 모아준 결과"라면서도 "군승 인재 육성과 수급의 최소요건을 만든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연동 · 학업 병행 등 지원 필요

단기대책 외에도 장기복무 확대와 세밀한 군승 처우 개선 등 장기 대책도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령 의무복무를 하게 될 종립대학 스님들의 경우 석박사 과정을 밟을 시 군종장교 3년 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에 대비, 학업 병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년 이상 군복무시 수령할 수 있는 군인연금이 격오지 근법당서 오랜기간 있는 군승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현재 군승 중 연금 수령 필요조건인 소령 진급자는 전체 군승 중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종특별교구 기획국장 현해 스님은 "대다수의 군종장교는 임관 시점이 빠르지 않아 연금 수령기한인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다"며 "장기복무를 했지만 중도 전역하는 군승들에게 연금이 연동되는 교법사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수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일반 재가학생들도 군승을 지원하게 된다면 출가자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현장의 니즈를 세밀하게 파악해 종단이 여러 방안을 만들어 갈 때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제안했다.

상월결사, 2월 9일부터 印 순례

7월 20일 간담회 열고 공식일정 공개

2월9일부터 3월23일까지
1167km 印 8대 성지 순례
100여명 순례단 구성 예정

불교중흥과 국난극복,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3년간 이어온 상월결사가 대장정의 핵심인 인도만행결사를 드디어 봉행한다.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7월 20일 동국대 본관 건학위 회의실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가칭)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장 원명 스님, 천리순례 3조 조장 법원 스님, 4조 조장 설암 스님, 박기련 상월결사 지원단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총도감 호산 스님은 "지금까지 순례의 최고 결정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상월결사 '(가칭)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는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순례코스는 인도, 네팔의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8대성지를 순례하는 길이며 그동안의 상월결사 순례와 마찬가지로 길위에서 먹고 자고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수행을 펼친다.

하루 행선 거리는 24~30km로 현지 42박 중 텐트에서 29박, 별도 숙소에서 12박을 머물게 된다. 녹야원, 마하보디 대탑, 죽림정사, 쿠시나가르 등에서는 대규모 법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 행선은 새벽 3시에 시작돼 묵언 속에서 진행된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이러한 대장정을 처음하기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인도 만행결사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는 불교 전체의 일이고 대한민국의 일이고 불교중흥 국민화합 세계평화의 결사가 성취되는 한걸음 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미리 보는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 3면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 · 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